

광산구, 저성장·고물가 경제위기 극복 '민생대책' 추진

10대 중점 분야 과제 선정...소상공인 경제 회복 최우선 지원 상가 밀집지 주차장 확충·공공일자리 발굴... '1313 이웃살핌' 확대

광주 광산구가 저성장, 고물가, 고금리 등 복합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민생 안정 지원하는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22일 광산구에 따르면 올해 구정 최우선 과제를 민생에 두고 지난 3월부터 경제주체와의 현장대화, 시민 제안 공모전, 정책기획단 위탁도의, 공직자 지성회의 등을 진행하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을 발굴했다.

광산구는 지난 10일 '민생활력 정책 공유회'를 통해 정책 밀그림을 마련하고, 예산, 실효성, 실행 가능성 등을 점검한 뒤 최근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종합대책은 '활력 넘치는 민생경제 조성'과 '두

텅고 촉촉한 취약계층 지원', '공감행정'이라는 3대 핵심 방향 아래 계층별, 분야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포함한 10대 중점 분야 과제로 이뤄졌다.

광산구는 우선 소상공인의 경제회복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 마케팅 비용과 영세 입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를 지원하고, 소상공인 대출 및 이자 지원 예산을 6억 원까지 확대해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돕는다.

또 공공주차장 조성(340면), 민영주차장 임대 등 상가 밀집 지역 주차 기반 시설 확충으로 골목상권 접근성 등 이용 환경도 개선한다.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25%) 사업도 이어간다.

구는 이밖에 중소기업 노동환경 개선사업,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 찾아가는 산단 노동자 직업 건강서비스 제공 등 기업과 노동자의 동반성장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다.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소비 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2000㎡ 내 15개소로 완화해 은누리상점권 가맹점을 확대하고, '광산구 브랜드관' 입점 지원,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 활성화, 상생 관광장터 확대 등 지역 경제주체의 판로 개척도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광산구는 또 가계 경제의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도 추진하는 등 지역 밀착형 공공일자리 발굴 확산, 창업지원을 비롯한 산단 안전사고 모니터

링단 등 사회공헌활동 분야 공공일자리(100여 개)를 추가 발굴해 총 1만 4707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광산구의 민생활력종합대책은 이 같은 다양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과 더불어 취약계층 지원을 더욱 촘촘히 두텁게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지난 10일 우선점에 1호점을 연 '천원한끼' 식당은 올해 5개소까지 확대해 취약계층에게는 저렴한 식사를, 어르신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대표적 사례다. 또 이웃이 이웃을 살피는 상호 돌봄망 구축을 위한 '1313 이웃살핌' 사업은 광산구 21개 전체 동으로 확대한다.

유유 배달과 연계한 독거어르신 안부 확인, 외국인주민 병의원동행 동역 서비스 제공, 가을 코스모스와 함께하는 릴레이 거리공헌 등 저소득층과 어르

신, 청년, 외국인, 문화예술인, 농업인 등 계층별·맞춤형 지원 정책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 지역업체 계약이행 보증 요건을 완화하고 선금 지급은 30%에서 50%까지 확대하며, 공공시설 공사는 조기 발주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로 했다.

이 같은 민생정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구정장 직속 '민생활력 추진단'을 가동하고, 국·소별 경제위기 극복 특별업무팀을 운영해 민생활력 정책의 실행력과 실효성도 높일 계획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 등 복합적인 경제위기로 소상공인, 기업, 노동자 등 경제주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시민, 전문가, 공직자가 함께 마련한 민생활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민생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황룡강생태길에 '청춘'을 심다
광주 광산구는 지난 20일 민선 8기 역점 사업으로 조성 중인 '황룡강생태길30'에서 성년의 날을 기념하고, 지역 청년의 미래를 응원하는 꽃 심기 행사를 진행했다. 서봉천수지구 일원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어린이, 대학생, 주민, 사회단체 등 800여 명이 참여했다.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사회적 대화 시작

광산구 '대화 추진단' 출범...일자리특구 조성 위한 의제 발굴 등

광주 광산구가 지속가능한 새로운 일자리 혁신 실험을 이끌 시민 중심의 사회적 대화를 본격화 한다.

22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 17일 지역경제활력센터에서 '지속가능 일자리 사회적대화 추진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추진단은 제조업, 민간·공공 서비스, 마을일자리 등 4개 분야 핵심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다.

추진단은 민선 8기 광산구의 역점 정책인 '지속가능 일자리특구' 조성을 위한 광산형 사회적 대화 기구로, 시민이 주도하는 사회적대화 체계를 설계·구축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혁신

의제를 발굴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된다.

광산구는 지역 전체를 양극화, 불평등, 저출생 등 복합적인 위기를 극복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모델로 만든다는 목표로 '지속가능 일자리특구' 조성·추진하고 있다.

8개월여간 진행한 연구용역으로 지속가능 일자리특구의 밀그림을 마련하고 지난 4월 이를 시민과 공유하는 최종보고회도 진행했다.

연구용역으로 지속가능 일자리 필요성, 지속가능 일자리특구 조성을 위한 단기·중장기 계획안 등이 제시됐으며, 연구용역과 연계해 진행한 시민 1800여 명 초점집단면접(FGI)에서 사회적 대화

필요성에 대한 응답률이 89.2%(필요, 매우 필요 합산)로 매우 높게 나타나는 등 사회적 대화 작동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날 발대식에선 또 사회적대화 추진단의 역할과 활동 방향 등도 공유됐다. 추진단장에는 지속가능 일자리특구 연구용역을 수행한 책임 연구자인 채준호 전북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선출됐다.

광산구 관계자는 "시민이 주도적으로 좋은 일자리에 대해 묻고 답하는 사회적대화가 지속가능 일자리특구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며 "광산의 일터, 삶터를 아우르는 일자리 혁신 의제를 발굴하고, 실현 방안을 찾아가는 시민 중심의 사회적대화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민간위탁노동자' 보호 협약서·소통창구 운영

김은정 구의원 조례 상임위 통과

김은정 광산구의원(진보당, 전남1·2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0일 제287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 정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반영하고,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수탁기관 공개모집 지원 시 제출 서류에 신청서, 사업계획서와 함께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보호하는 협약서를 포함하도록 했다. 또 민간위탁 노동자 고용 시 근로계약 기간과 수탁 기간을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하고, '위·수탁 3자 협의회'를 구성해 근로조건과 복지, 임금 등의 처우 관련 사항을 공유·논의하는 소통창구를 마련하



도록 했다.

'위·수탁 3자협의회'는 연 2회 이상 운영해야 하며, 위·수탁기관은 물론 수탁기관의 노동자 대표도 참여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밖에도 지자체가 수탁기관의 대표자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노동인권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했으며, 사업비 지출의 투명성에 관한 조항도 신설했다. 수탁기관은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고 위탁기관은 위탁사무 관련 노무비를 해당 계좌로 지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무수행의 기본계획, 예·결산, 중사자 근무 환경 개선 등을 심의하는 '수탁사무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여 사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였다. /최승렬 기자 srchoi@

가축사육제한구역 분뇨 배출시설 현대화 가능

박현석 구의원 조례 상임위 통과

박현석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광산구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의 전부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전부 개정안은 박현석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지난 17일 제287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시민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및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가축사육이 제한된 구역으로, 무분별한 축사 건축을 지양하고 환경을 쾌적하게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광산구는 관련 조례를 2008년 최초 제정했으며, 2016년 일부 개정을 마지막으로 정비되지 않아 축사 운영 실정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이 제안한 개정안은 가축사육의 제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와 관련해 그 기준을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 가능한 행위를 규정해 현행조례에서는 제한됐던 배출시설의 개축·재축에 대해 현대화 시설로 갖추거나 전제지반 및 재해로 멸실된 경우는 동일 부지 내에서 가능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했다.

박현석 의원은 "이번 전부 개정으로 주민에게 불합리하게 작용했던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은 물론 지역 축산업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주민 생활의 질을 개선하고 상상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